시민 환수운동 모범…“세대 전승해 환수 이룰 터”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⑤ 이천오층석탑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오쿠라호텔 슈코칸(集古館) 야외에는 고려 양식의 석탑 2기가 있다. 하나는 이천오층석탑이며 다른 하나는 평양 율리사지 팔각칠층석탑으로,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무단으로 반출됐다. 특히 이천오층석탑은 신라계 석탑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고려 초기 석탑으로 이천 지역 고려시대 문화양상을 방증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일제 통치 홍보 위해 반출된 석탑

이처럼 가치 높은 지역 문화유산이 본래 자리를 떠나 이역만리 타향의 호텔 전시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천오층석탑은 본래 이천향교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일제는 1913년 “개성과 이천 지역 석탑 중 우수한 문화재를 골라 옮겨 고고학 자료로 보존한다(〈매일신보〉 1913년 3월 20일자)”고 공포하고 석탑들을 반출할 계획을 세웠다.

일제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운 이유는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를 위해서다. ‘조선물산공진회’는 한일합방 이후 5년 동안 조선의 산업 진흥과 문명 개화를 명분으로 식민 지배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복궁 일부 전각들을 전시장으로 개조했다.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당시 반출된 석조문화재들은 야외 전시물로 전락했다. 당시 석조문화재는 광화문에서 미술관까지 총 6점이 전시됐다. 순서는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총 2기 중 1기) △개성 남계원지 칠층석탑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총 2기 중 1기) △이천 안흥사지 오층석탑 △이천오층석탑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등이었다. 미술관 옆에는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부도와 탑비가 전시됐다. 본래 자리를 떠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이 된 석탑과 불상 등 성보문화재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조선물산공진회’를 위해 이뤄진 무단 반출의 산물이다.

식민 재벌 탐욕에 현해탄 건너다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를 위해 이천을 떠난 오층석탑의 수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 正毅)의 하수인으로 거대재벌이 된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는 전시를 위해 철거한 경복궁 자선당(세자의 침소)을 일본으로 가져갔고, 반출됐던 이천오층석탑도 조선총독부를 통해 양도받았다.

자선당은 ‘조선관’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됐고, 한반도에서 가져온 석탑과 유물 등으로 오쿠라는 일본 최초 사립 박물관인 오쿠라 슈코칸을 1917년 개관했다. 당시 조선실에서 진열된 미술품이 3692점이나 됐으며, 서적도 1만 5000여 권이 있었다고 한다.

이천오층석탑의 양도는 슈코칸 개관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918년 7월 오쿠라 슈코칸 이사 사카다니 요시로(阪谷芳郞)가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오쿠라가 하세가와를 만나 재건된 자선당에 어울리는 석탑 양도에 대한 구두약속을 받았고, 총독부 담당 관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애초 오쿠라 측이 양도받기를 원한 석탑은 이천오층석탑이 아니라 평양 정류장 앞 팔각칠층석탑이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평양 정류장 앞 팔각칠층석탑은 세인의 이목이 있어 반출이 불가함을 밝히고 대신, 박물관에 있는 이천오층석탑의 이운을 권했다. 이를 받아들인 오쿠라 슈코칸은 1918년 조선총독부 반출 허가를 요청했고 총독부는 다음날 바로 ‘허거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그렇게 식민 재벌의 탐욕으로 이천오층석탑은 현해탄을 건너 오쿠라 호텔 옆 슈코칸 경내로 이운됐다.

이천 향교 옆에 있던 오층석탑
1915년 공진회 전시 위해 반출
전시 이후 밀약 통해 일본으로
현재 오쿠라호텔 전시물로 돼

2003년 지역문화지 문제 제기
이천 출신 재일교포 위치 찾아
시민 중심으로 환수운동 전개
30여차례 협상에도 환수 난항

장기전 돌입…세대 전승 초점
환수염원탑 조성, 백일장개최
조직 재정 어려움…도움 절실

야외 전시물로 전락한 이천오층석탑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석탑의 훼손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석탑 4층 모서리가 파손되고 옥개석이 비틀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석탑은 2015년 슈코칸 리모델링을 위해 해체됐다가 2019년 재개관에 맞춰 다시 세워졌다.

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잊혀졌던 이천오층석탑이 다시 알려진 것은 일본에서 발간된 재일 교민 월간지 〈아리랑〉 1996년 1월호를 통해서다. 당시 잡지는 경복궁 자선당 유구를 취재하기 위해 슈코칸을 방문했다가 석탑의 존재들을 알게 됐다고 기술했다.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이천문화원에서 발간한 문화지 〈설봉문화〉 제30호(2003년 가을호)에 ‘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이천지역-향교 앞 오층석탑의 이전 경위를 중심으로’를 통해서다. 이후 이천 출신 재일교포 김창진 씨가 2005년 12월 이천문화원을 방문해 석탑환수운동을 제의했고, 2006년 ‘이천의제21’에서 석탑 환수운동의 공식 제안이 이뤄졌다.



일본 오쿠라 호텔 슈코칸 야외에 전시된 이천오층석탑. 본래 이천 향교 옆에 서 있던 것을 일제가 무단 반출해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 전시했다. 이후 오쿠라재단의 요청에 의해 양도됐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0년 1월 환수염원탑 건립 제막식 모습. 이천 시민의 환수 염원이 담겼다.

2007~2008년 두 번의 시민토론회가 진행됐으며, 2008년 8월 지역 시민단체 24곳이 참여해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이후 환수위)가 공식 창립됐다. 환수위는 현지 조사를 비롯해 학교 순회 교육, 전시회, 국제심포지엄 등을 진행했으며,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수 서명 캠페인을 통해 9개월 동안 시민 10만 9000여 명의 서명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환수위는 오쿠라문화재단과 환수를 위한 협의를 30여 차례 진행했다. 처음에는 1965년 국교 정상화 협정서를 근거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던 오쿠라문화재단도 10만 시민의 서명서를 보고 난 이후에는 입장이 달라졌다. 일진일퇴의 협상이 8년간 이뤄졌지만, 2018년 8월 오쿠라문화재단은 “문화재 반환은 1965년 국교 회복 당시 한일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입장을 밝히며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실제적 결실을 아직 맺지 못했지만,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의 모범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환수위 출범 이후 24년 동안 각종 토론회와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보고서 발간, 탑돌이 문화제, 학생 백일장, 홍보사업 등이 끊임없이 이뤄져서다.

2009년부터 환수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보문 스님(평택 자비사 주지,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은 “시민의 집념과 열정으로 시작한 환수운동은 10만 명 서명으로 확산됐고, 마침내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났다”면서 “환수위는 지금도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만큼 모범적인 시민사회단체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18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이제 환수운동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환수위는 2020년 1월 환수염원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으며, 지난해에는 그간의 환수운동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환수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세대 전승은 숙제로 남았다.

보문 스님은 “지속적으로 환수 여론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천 안흥사지 오층석탑의 환지본처 사업을 통해 일제 반출 지역 문화유산을 알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환수염원탑 탑돌이 문화제 등의 문화사업을 통해 이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수 운동을 펼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상구 환수위 상임위원장은 “이천오층석탑 환지본처는 길게 보고 가야할 운동이다. 세대 전승을 통해서라도 항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구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실무를 함께해 줄 직원 한 명의 월급도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정부나 시에서 급여 정도만이라도 보조나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